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24일 월요일 음 2월 1일 (8월)

기상정보

흐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5~8°C, 낮 최고 기온은 16~17°C의 분포를 보이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2.0m로 일겠다.

Table with 2 columns: Time (오전, 오후) and Weather/Cloudiness (강수 확률, 구름). Rows show percentages for rain and cloudiness at different times.

Table with 2 columns: Time (해돋이, 해질녘) and Temperature (기온). Rows show sunrise/sunset times and temperatures.

Table with 2 columns: Day (내일, 모레) and Weather (날씨). Rows show weather forecasts for the next two days.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생활·안전) and Information (기상정보). Rows show food safety and other daily life info.

월드뉴스

기생충 비판한 트럼프에 유명스타들 반박

미국 언론도 트럼프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부 지역 유세에서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을 비판하자, 미국의 유명 가수 겸 배우 벳 미들러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백악관의 기생충"이라며 대진 반격했다.



트럼프에 반박한 유명배우 벳 미들러.

"그 영화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거듭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CNN 방송과 워싱턴포스트 등이 즉각 반박성 기사를 내보냈고, 뉴욕타임스도 22일 '미국의 기생충'이라는 제목의 비판 칼럼을 썼다. 폴리처상 수상자인 모린 다우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선셋 대로'와 같은 1900년대 중반 영화를 언급한 것을 지목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는 에를렌타가 불에 타 사라졌는데 트럼프 버전에서는 워싱턴이 불타고 있다"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백록담



진 선희 교육문화체육부장

엣그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코로나 19 여파로 힘들어하는 공연업계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대학로를 중심으로 예매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공연예술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무대를 뛰고 있는 공연예술인들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감염병의 파장으로 더 팍팍해진 모습이다. 제주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일각에선 "언제 별다른 날은 있었나"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코로나19처럼 제주 역시 시국의 흐름을 타는 곳이지만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때

제주 공연계에 별드는 '해비치' 언제쯤

사 조들려온 지역 공연계의 처지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지난해까지 12회에 걸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최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은 그 이름처럼 제주 공연계에 헤가 비치는 축제가 되길 기대했다. 제주도가 꾸준히 보조금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 공연예술인들엔 먼 세상이었다.

해비치페스티벌은 2006년 제주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예술행진 세미나에서 출발했다. 이듬해 지금의 주행사장인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 앤리조트로 장소를 옮겼는데 그 때까지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혁신경진대회와 예술행진 세미나를 겸했다. 해비치페스티벌 명칭이 달린 건 2008년으로 그 해에 오늘날과 유사한 공연, 아트마켓, 쇼케이스, 세미나, 문예회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 프로그램이 짜여졌다.

이 축제에 제주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3000만원 안팎을 지원했고 2016년엔 1억원으로 3배 넘게 보조금을 늘렸다. 그러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억원의 보조금을 냈고 올해도 2억원을 배정했다. 2억원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벌이는 2020년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중에서 연극·전통·다원예술 분야 지원액 1억5800만원을 웃도는 액수다.

지난 7년 동안 해마다 제주도 보조금이 해비치페스티벌로 향했지만 제주 공연예술인들의 입지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공연유통 활성화를 위한 아트마켓은 접근이 어려웠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비치페스티벌을 두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을 다그쳤지만 거기에 '제주'는 없었다. 오죽하면 애초 배경만 제주도인 피서지 축제에서 그들끼리 '지지고 볶다' 간다는 말이 나왔을까 싶다.

주최 측은 올해 아트마켓 전시에 5개 부스를 처음 제주에 할당하고 제주 지역 공식참가자 숫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문예재단과 연계해 예술단체 대상 유통 활성화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할당 도움판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주 공연계가 역량을 키우는 행보에 맞춰 바깥에 팔릴 수 있는 작품을 빛어낼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현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가입된 공연장부터 지역 공연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무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년 해비치페스티벌의 지역 경제 효과로 100억원 가까이 제시됐지만 신평 와닿지 않았다. 우수작품 하이라이트를 시연하는 쇼케이스에 제주 산 작품이 오르는 등 지역 공연계의 진출로 그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한다.

열린마당

봄철 산불 예방이 최우선



김 병 수 제주서부소방서 안덕119센터

따뜻한 봄이 오고 있다. 봄철에는 등산객, 성묘객, 캠핑객 등 산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따뜻한 봄철 산을 만끽하는 것도 좋지만, 주의사항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의해 발생한다.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산불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특히 봄철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다른 계절에 비해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바짝 마른 풀과 나무도 산불 발생률을 높인다. 실제로 산불 중 50% 이상은 봄철에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봄철에는 더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몇

도민과 '상생 협력' 없는 대규모 쇼핑몰



신 애 북 누웨마루거리상가변영희장

'코로나19' 폭풍이 매섭다. 관광객마저 발길이 끊겨 누웨마루 거리를 비롯한 골목상권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다행인 점은 경영 안정 자금 조기 투입과 경기 침체 위기 극복 협의체 구성 등 경기 부양을 위한 범도민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범도민적인 지원에도 한편에서는 골목상권 잠식을 노리고 있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 주체는 대규모 쇼핑몰 '신세계면세점'과 '나인몰', '드림타워'이다. 이들은 신제주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겨냥하고 있다. '나인몰'과 '드림타워'는 뷰티, 음식점, 영화관에 이르기까지 골목상권과 동일한 상품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

공한다. 이는 고객들의 인근 상권 유입을 차단해 전 상권을 고사 시킬 것이다. 하지만 관련법에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유관 기관의 규모 조정 등 적극적인 개입과 대규모 쇼핑몰의 자발적인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

대규모 쇼핑몰의 경우,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 협력에 별 다른 움직임이 없다. 특히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특허심사위원회'의 특허 공고가 없는 상황에서 면세점 예정 부지 매입에 나서며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점을 강행하고 있어 주관 부서와 사전 협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대기업의 제주 시장 진출 과정을 답습한 바 있다. 대기업의 대규모 쇼핑몰 진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공헌 활동 전개를 청사진으로 제시해 왔지만, 대규모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와 교통 혼잡 초래 등으로 대다수 도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더 이상 '빛 좋은 개살구'식의 상생 제안은 지양하고 도민사회와의 공론화를 통해 도민이 기대하는 대기업의 역량을 발휘할길 기대해 본다.

제주도정 소식

감귤 재배 첫 걸음, 노지감귤 정식·전정 교육생 모집 2월 24일부터 선착순 150명 모집, 회당 50명씩 3회 3시간 과정 운영 문의: 농촌지원팀 (☎760-78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행동) 수칙 ①호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②가볍힐 땀, 손이 아닌 옷소매로! ③가장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될 땐, 반드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안내

Table with 4 columns: Division (구분), Medical Institution (의료기관명), Address (주소), and Contact (연락처). Lists COVID-19 screening centers.

"전기차 타기 좋은 제주, 직접 만들어요" -행복을 증진하는 전기차 서포터즈 모집- ○ 모집기간: 2020. 2. 19. ~ 3. 3. ○ 모집인원: 50명 ○ 지원자격: 도내 개방형 충전기(급속, 완속) 월 평균 3기 이상 이용가능한 자 ○ 주요활동 -도 전기차 홍보관 운영 시 홍보 및 참가자 활동 -전기차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전기차 충전에너지 및 문화 확산 운동 전개 -개방형 충전기 주기적 방문으로 개방형 충전기 관리업무 수행 -전기차 관련 다양한 이용사례 인문기고 및 블로그 등 SNS 기반 홍보 등 ○ 신청방법: 전자우편으로 지원서 제출 (ynjhng@korea.kr) ○ 결과발표: 3월 초 개별통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지연소정책과) ☎710-2655

귀농·귀촌 무료교육 안내 ○ 교육신청: 2월 25~26일 2일간(오전 9시부터 모집인원 150명 선착순 접수 마감) * 본인인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 교육기간: 3. 3. ~ 4. 14. 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6시(13회 60시간) ○ 교육내용: 2020 귀농·귀촌 정책 및 귀농의사결정 등 정책분야강의, 발달표, 친환경농업 등 영농기술분야 제주 역사와 문화, 제주 사람들의 삶과 언어, 농어촌관광 등 제주의 이해분야 등 ○ 문의: 기술지원정책과 인력교육팀 (☎760-7522-7525)

2020년 '청소년 프로그램' 및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사업 공모 ○ 공모개요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 등 사업 실적이 있는 청소년 시설,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정관 사본 등 증빙 첨부) ○ 대상사업 (※ 참고1)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0. 2. 13. (목) ~ 2020. 2. 27. (목) 18:00까지 ○ 신청방법: 방문, 등기우편(우편은 '20. 2. 27. 소인까지 유효) 제출 -접수장소: 도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42) * 신청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u.go.kr) 입법·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아 활용 ○ 신청방법 및 결과발표 ○ 선정방법: (일반회계) 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방법: (청소년육성기금) 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결과발표: 2020. 3월 중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지 ○ 문의: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42)

신중년의 인생재도약을 위한 미래세력 특강 "당신의 중년은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삶의 설계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언과 지혜를 담은 힐링 강연) ○ 일시/장소: 2020. 3. 5. (목) 19:00/벤티치마루 10층 대강당 ○ 접수: 무료 선착순 전화접수 (☎064-710-3823-5) 강사: 이 호 선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710-3823

주간농업농촌소식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하는 고품질 감귤안전생산산책 견학인 '노지감귤정식·전정' 교육생 15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교육안내- ○ 목적 ○ 올바른 노지감귤 정식·전정 기술보급으로 고품질감귤 안전생산 ○ 이론과 현장실습 병행으로 농업인 효과 극대화 ○ 교육개요 ○ 교육기간: 2020. 3. 3. ~ 3. 5. (월) 14:00-17:00(이론 1, 실습 2시간) ○ 계획인원: 3회 150명 * 1인 1회 과정만 신청 가능 ○ 교육장소: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및 실증시험포장 ○ 교육대상: 교육 희망 농업인 ○ 교육내용: 노지감귤 정식·전정 이론 및 실습 ○ 교육일정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